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손 정 남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시기에 청소년이 성적 충동과 관심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며(Han, Park, & Baek, 2000)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성과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성인기에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사귀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상호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성 행동을 실험해보는 기회가 된다(Atwater, 1992).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매우 단편적으로 생각하여 성행위 중심의 성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성의 쾌락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성에 따르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여 성이 생명의 탄생 즉 임신과 연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Shin, 2002).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은 이성 교제율이 48.1%, 성 경험률이 4.5%, 임신 경험률이 0.5%, 낙태 경험률이 0.4%, 성병 경험률이 0.8%, 피임 경험률이 3.4%에 이르고 있다(Chang et al., 2000). 십대 여학생들의 가벼운 성 접촉으로부터 이어지는 조기 성교경험은 피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교를 하게 되어 성병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임신을 경험하게 된

다(Shin, 2002). 십대가 임신을 한 경우 71.2%가 인공유산율, 3.4%가 입양을 선택하게 되어(Chang, et al., 2000), 인공유산을 선택한 경우 자궁 외 임신, 전치태반 등의 신체적 문제(Choi et al., 1999)와 함께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며, 미혼모가 된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불안, 두려움 및 부적절한 산전·산후 관리로 인한 생식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Shin, 2002). 또한 학업의 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사생아 출산,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탈락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등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문제와 함께 양육의 문제, 결혼 부적응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발달이 된다(Choi et al., 1999).

청소년의 성 행동에 영향을 하는 것으로 가족, 학교, 친구, 성격 및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 자녀간의 애착 수준이 높고, 갈등이 적고, 부모가 적절한 수준에서 자녀들을 감독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적게 하며(Smith, 1997),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여 빠른 성 행동이나 임신과 같은 행위를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한다(Spear, 1997). 성 경험 친구의 유무가 성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Lee, & Lee, 2000; Lee et al., 2000), 감각추구는 건강위험 및 환경적 위험과 관련성이 높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측하며(Ferguson & Valenti., 1991),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대상자에게서 성 상대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raft & Rise,

주요어 : 성, 위험요인

1)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투고일: 2003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4년 5월 4일

1994). 심리적 요인 중 자이즌증감, 내적 통제감, 자기효능감 등이 성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all & Bogenschneider, 1994; Kang, 2000; Sionean et al., 2002). 성행동의 관련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Han, Lee와 Lee(2000)는 학교, 가족 등의 구조적인 특성, 교육 및 건강위협행태 등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친구, 음주, 흡연이 혼전 성행위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고, Kim(1999)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이나 음주,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에 따른 분석을 통해 자위경험이 성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등(2000)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태도, 의지, 기대, 친구, 부모, 사회의 영향, 음주 및 흡연 등을 변수로 투입하여 성별, 직업, 음주, 흡연유무 등이 미혼 남녀의 혼전 성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구조적인 특성과의 관련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가 모두 성경험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였으나 청소년의 경우 성경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성경험에 이르기 전에 진행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변수로 선택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특성 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고생의 성 건강을 유지하고, 성 생식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중재방법을 개발하고, 성문제 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미리 예측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고생의 성 관련 경험의 유형을 분류한다.
- 여고생의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확인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 선정은 서울의 인문계 고교 200개와 실업계 고교 총 70개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63,375명중 633명을 표집 하였다. 표집 방법은 서울시의 11개 교육구청을 4개

지역으로 재편성하여 지역별로 한 개씩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인문계 여학생 총 48,201명 중 482명, 실업계 여학생 15,174명 중 151명을 각각 표집 하였다. 이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11명을 제외한 5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고등학교 2학년에 한정시킨 이유는 가급적 연령과 교육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성관련 경험 도구, 가족요인 도구, 학교요인 도구, 이성교제 및 차별적 교제 도구, 감각추구성향 도구, 자이즌증감 도구, 자기통제 도구, 자기 효능감 도구이다.

• 성 관련 경험 도구

성 관련 경험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십대 여학생이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한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 13가지 경험항목에 대해 자가보고식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없다' 0점에서 '아주 많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 관련 경험을 인자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 1요인은 친밀감표현 경험으로, 제 2요인은 성적표현 경험으로 명명하여 본 조사에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α =.85로 나타났다. 제 1요인의 신뢰도 Cronbach α =.91이었고, 제 2요인의 신뢰도 C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 가족요인 도구

가족요인은 가족애착, 가족결손, 학대경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애착은 Kim과 Park(1995)의 가족애착도구로 측정하였다. 가족 애착도구는 가족과의 친밀도, 대화정도, 감독정도에 대한 총 1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애착 도구의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α =.91이었다.

가족 결손 여부는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모두 안 계신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두 분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결손가정으로 보았다. 가족 결손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dummy변수처리 하였다.

학대 경험은 Kim과 Kim(1995)의 신체적 학대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11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가 많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 3개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이를 제외한 총 8개의 문항을 최종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조사에서 Cronbach α =.72이었다.

● 학교요인 도구

학교요인은 학업전념, 학교개입정도, 학업 성취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전념은 Hirsch(1969)의 전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문항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1점,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전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69$ 로 나타났다.

학교개입은 Hirsch(1969)의 개입도구에 기초해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4문항을 '절대 그렇지 않다' 1점,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개입이 많음을 의미한다. 학교개입 도구의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66$ 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자신의 학급에서의 등수를 퍼센트로 환산한 후 역으로 처리한 점수 $100 - \{(\text{자신의 등수}/\text{총 인원}) * 100\}$] 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 친구요인 도구

친구요인은 이성교제와 차별적 교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성교제는 Akers(1998)의 차별적 교제 개념에 근거하여 이성과의 교제 빈도, 강도, 기간, 남자친구의 수 등을 묻는 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94$ 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는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정도로 Akers(1998)의 차별적 교제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관련 영역 별로 경험한 친구의 수를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많다' 5점까지의 총 6개 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 중 성관련 경험친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83$ 으로 나타났다.

● 감각추구성향 도구

감각추구 성향은 Ferguson과 Valenti(1991)의 감각추구 도구를 수정한 도구로 모험심 7문항, 충동성 6문항, 탈억제 3문항 등 3개 영역 총 16개 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 조사 결과 탈억제의 17번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 본 조사에서는 이를 제외한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전체 Cronbach $\alpha=.83$, 모험심의 Cronbach $\alpha=.91$, 충동성의 Cronbach $\alpha=.76$, 탈억제의 Cronbach $\alpha=.70$ 으로 나타났다.

● 심리적 요인 도구

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urg(1965)의 도구를 Chun(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87$ 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는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 통제 평정척도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와 Humphrey(1982)의 T-SCRS 도구를 청소년에 맞도록 수정한 Kim(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총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75$ 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도구로 총 13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84$ 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예비조사를 2002년 5월 24일 ~ 5월 31일까지 1개 고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참여 동의를 받은 120명의 여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 120개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 19개를 제외한 101개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분석과 신뢰도 조사를 하고,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성관련 경험도구는 인자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선정된 인문고 3개교, 실업고 1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 학년 부장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비밀유지나 자료수집에 유의할 사항을 알리고, 각 학급에서 학년부장 교사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고 작성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상소요시간(약 25분 ~ 30분)을 알려주고 무기명으로 하여 비밀보장을 할 것을 약속한 후 참여 희망자에게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자료 수집을 주관하는 학년 부장 교사가 절대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보지 않도록 봉투를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633부였으나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한 522부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6.12 PC+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성관련 경험은 주축 인자법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각 요인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variables	category	N(%)	mean
age			16.8
types of school	academic	390(74.9)	
	vocational	131(25.1)	
religion	no	217(41.6)	
	catholic	64(12.3)	
	christian	176(33.7)	
	buddhism	60(11.5)	
	other	5 (1.0)	
economic level	upper	16 (3.1)	
	middle upper	163(31.2)	
	middle	267(51.2)	
	middle lower	68(13.0)	
	lower	8 (1.5)	
deficit of family	no	460(88.3)	
	yes	61(11.7)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	no	197(37.8)	
	yes	324(62.2)	
pocket money	<10,000	47 (9.0)	
	10,000≤money<30,000	150(28.9)	
	30,000≤money<50,000	186(35.8)	
	50,000≤money<100,000	99(19.0)	
	100,000≤	38 (7.3)	
sexual education	yes	485(93.5)	
	no	34 (6.6)	
acquisition sources of sexual information	parents	24 (4.6)	
	teachers	166(32.0)	
	brothers & sibling	3 (0.6)	
	friends	156(30.1)	
	books & journal	38 (7.3)	
	computer contents & internet	81(15.6)	
	others	51 (9.8)	
sexual problems	yes	94(18.0)	
	no	427(82.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16.8세였다. 학교의 종류는 74.9%가 인문계였고, 25.1%가 실업계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인 3:1의 비율로 표집 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3.7%, 천주교 12.3%, 불교 11.5%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이 51.2%로 가장 많았고, 중상 31.2%, 중하 13.0%, 최상 3.1%, 하 1.5%로 나타났다. 가족결손은 부모님의 생존과 동거 여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족결손이 없는 경우가 88.3%, 결손이 있는 경우가 11.7%로 나타났다. 음란물은 62.2%가 본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한 달의 용돈 규모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은 93.5%의 대상자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성 교육자는 교사가 32.0%로 가장 많았다. 성고민은 18.0%의 대상자가 있다고 답하였다.

성관련 경험에 대한 인자분석결과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13가지의 문항을 설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자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성 관련 경험 대한 인자 분석 결과 고유 값이 1이상인 인자가 2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인자는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키스 등으로 고유 값 5.11이고, 이를 '친밀감 표현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인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피임,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 출산 등으로 고유 값 2.84로 이를 '성적표현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친밀감 표현경험과 성적표현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xual behaviors

	factor1	factor2
1. holding hands	0.88	0.03
2. arms around	0.89	0.02
3. acts of embracing	0.93	0.10
4. kiss	0.91	0.14
5. french kiss	0.85	0.20
6. touch breasts	0.47	0.54
7. touch sexual organs	0.28	0.72
8. coitus	0.17	0.84
9. contraceptions	0.07	0.84
10. pregnancy	-0.06	0.75
11. abortion	-0.06	0.75
12. prostitution	0.08	0.33
13. birth	0.00	0.00
Eigen Value	5.11	2.84

성관련 경험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성관련 경험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친밀감 표현 경험은 가족애착($r=-.19, p=.00$), 학교 전념($r=-.24, p=.00$), 학교 개입($r=-.21, p=.00$), 학업성취도($r=-.22, p=.00$), 자기통제($r=-.16, p=.00$)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경험($r=.22, p=.00$), 이성교제($r=.79, p=.00$), 차별적 교제($r=.56, p=.00$), 충동성($r=.18, p=.00$), 탈억제($r=.39, p=.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애착, 학교 전념, 학교 개입, 학업성취도, 자기통제가 약할수록, 학대 경험,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충동성, 탈억제 경향이 강할수록 친밀감 표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표현 경험은 가족애착($r=-.13, p=.01$), 학교 전념($r=-.12, p=.01$), 학교 개입($r=-.11, p=.02$), 학업성취도($r=-.14, p=.00$)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경험($r=.12, p=.01$), 이성교제($r=.24, p=.00$), 차별적 교제($r=.35, p=.00$), 탈억제($r=.17, p=.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애착, 학교전념, 학교개입,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 학대경험,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탈억제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표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가족요인에서는 가족애착, 가족결손, 학대경험,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전념, 학교개입, 학업성취도, 친구요인에서는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감각추구성향에서는 모험심, 충동성, 탈억제, 심리적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등을 독립변수로, 친밀감 표현경험과 성적 표현경험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에 다중회귀 분석시의 가정들인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아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잔차 도표를 통해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통계량이 1.816~ 1.970으로 2에 가까워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검정한 결과 분산확대 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1.70으로 10이상 되는 값이 없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 선택시 다중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방법(stepwise selection)으로 변수를 선택하였고, 변수선택시의 유의수준은 .15, 변수 제거시의 유의 수준은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자분석에서 분류된 2개의 영역, 친교표현 경험과 성적표현 경험에 따라 각각 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각 요인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교표현경험에서는 가족요인의 학대 경험과 가족애착, 학교요인의 학교전념과 성취도, 친구요인의 이성교제와 차별적 교제, 감각추구성향의 탈억제, 충동성, 모험심, 심리적 요인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가족결손은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학대 경험이 1단위 증가시 친교 표현 경험은 1.10증가하며, 가족애착이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은 0.23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별 비교시 학대경험이 가족애착보다 영향이 크며 가

<Table 3>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Y1	Y2
X 1	1														
X 2	-.32**	1													
X 3	.41**	-.23**	1												
X 4	.33**	-.15**	.58**	1											
X 5	.27**	-.14**	.50**	.31**	1										
X 6	-.12**	.16**	-.22**	-.18**	-.19**	1									
X 7	-.10*	.15**	-.23**	-.15**	-.13**	.47**	1								
X 8	.10*	.20**	-.03	.03	-.02	.07	.12**	1							
X 9	-.21**	.14**	-.30**	-.37**	-.10*	.15**	.19**	.20**	1						
X10	-.11*	.18**	-.18**	-.20**	-.16**	.38**	.37**	.30**	.18**	1					
X11	.49**	-.18**	.41**	.32**	.23**	.01	-.05	.20**	-.28**	-.01	1				
X12	.39**	-.10*	.40**	.35**	.24**	.14**	.11*	.30**	-.27**	.15**	.60**	1			
X13	.36**	-.15**	.50**	.46**	.26**	-.16**	-.19**	-.01	-.56**	-.23**	.39**	.46**	1		
Y 1	-.19**	.22**	-.24**	-.21**	-.22**	.79**	.56**	.06	.18**	.39**	-.07	.08	-.16**	1	
Y 2	-.13**	.12**	-.12**	-.11*	-.14**	.24**	.35**	-.02	.09	.17**	-.06	-.03	-.08	-.43**	1

X1: family attachment
 X2: abuse experience
 X3: school commitment
 X4: school involvement
 * p<.05, ** p<.01

X5: achievement
 X6: association with boy friend
 X7: differential association
 X8: adventure

X 9: impulsiveness
 X10: disinhibition
 X11: self esteem
 X12: self efficacy

X13: self control
 Y 1: intimate related experience
 Y 2: sexual experience

족요인의 두 변수가 친교표현 경험을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개입은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학교 전념이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은 0.30 감소하고, 성취도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은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별 비교시 학교 전념이 성취도보다 영향이 크며 이들 변수들이 친교표현 경험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요인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이성교제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이 0.68 증가하고, 차별적 교제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 0.6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비교시 이성교제가 차별적 교제보다 영향력이 크며 이들 변수들이 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탈억제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이 0.46증가하며, 충동성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 0.16증가하며, 모험심 1단위 증가시 친교표현 경험 0.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비교시 탈억

제, 충동성, 모험심의 순으로 영향하며, 이들 변수들이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및 자아존중감이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자기통제가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은 0.75감소하며, 자기효능감이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은 0.67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은 0.34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변수별 비교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영향함을 알 수 있다<Table 4>.

성적 표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요인의 가족애착과 학대경험, 친구요인에서는 차별적 교제와 이성교제, 감각추구 성향에서는 탈억제,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통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가족애착이 1단위 증가시 성적표현 경험이 0.02 감소하며, 학대경험이 1단위 증가시 0.06증가하였다. 변수별 비교시 가족애착이 학대 경험보다 영향력이 크며, 이들 두 변수

<Table 4>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s according to factors

		estimate	standadized estimate(β)	t	p	F(p)	R ²	collinearity tolerance	statistics VIF
intimate related experiences									
family factor	intercep	1.86		5.45	.00	15.01(.00)	.06		
	abuse experience	1.10	.17	3.76	.00				
	family attachment	-.23	-.12	-2.54	.01				
school factor	intercep	2.69		9.68	.00	17.22(.00)	.06		
	commitment	-.30	-.17	-3.37	.00				
	achievement	.07	.13	2.60	.01				
friend factor	intercep	-.95		-12.10	.00	504.56(.00)	.66		
	association with boy friend	.68	.67	23.03	.00				
	differential association	.61	.24	8.21	.00				
sensation seeking	intercep	-.96		-3.17	.00	34.80(.00)	.17		
	adventure	-.09	-.08	-1.98	.04				
	impulsiveness	.16	.12	2.83	.01				
	disinhibition	.46	.40	9.31	.00				
Psychological factor	intercep	2.45		5.02	.00	12.65(.00)	.08		
	self control	-.75	-.23	-4.70	.00				
	self efficacy	.67	.28	5.04	.00				
	self esteem	-.34	-.13	-2.40	.02				
sexual experiences									
family factor	intercep	.09		2.70	.01	6.12(.00)	.02		
	family attachment	-.02	-.10	-2.12	.03				
	abuse experience	.06	.09	1.95	.05				
friend factor	intercep	-.04		-2.92	.00	35.94(.00)	.13		
	association with boy friend	.10	.11	2.22	.03				
	differential association	.72	.30	6.20	.00				
sensation seeking	intercep	-.05		-2.19	.03	14.76(.00)	.03		
	disinhibition	.02	.17	3.84	.00				
psychological factor	intercep	.19		2.64	.01	4.02(.05)	.01		
	self control	-.03	-.09	-2.01	.05				

<Table 5>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s

	estimate	standadized estimate(β)	t	p	F(p)	R ²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intimate related experiences								
intercep	-.51		-2.37	.02	266.87(.00)	.68		
association with boy friend	.68	.67	23.04	.00			.76	1.31
differential association	.57	.23	8.06	.00			.77	1.31
family attachment	-.13	-.07	-2.42	.02			.89	1.12
abuse experience	.35	.06	2.04	.04			.87	1.14
sexual experiences								
intercep	.03		.79	.43	25.48(.00)	.14		
differential association	.07	.29	6.11	.00			.78	1.29
association with boy friend	.01	.10	2.03	.04			.77	1.29
family attachment	-.02	-.09	-2.02	.04			.98	1.02

들이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은 성적표현 경험에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요인은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차별적 교제가 1단위 증가시 성적표현 경험 0.72 증가하며, 이성교제 1단위 증가시 성적표현 경험 0.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비교에서 성적표현 경험에는 차별적 교제가 이성교제 보다 영향력이 크며, 이들 변수들로 13%를 설명할 수 있다. 감각추구성향에서는 탈억제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탈억제 1단위 증가시 성적표현 경험은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가 성적표현 경험을 3%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자기통제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할 때 자기통제 1단위 증가시 성적표현 경험 0.04감소하며, 이 변수만으로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친교 표현 경험에서 각 요인별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즉 학대 경험, 가족애착, 학교 전념, 성취도,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모험성, 충동성, 탈억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및 학대 경험 등이 최종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친교 표현 경험의 총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성교제가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이 0.68증가하며, 친구와의 교제가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이 0.57 증가하며, 가족애착이 1단위 증가시 0.13감소하며, 학대경험이 1단위 증가시 친밀감 표현경험이 0.35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비교시 이성교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학대 경험의 순으로 친밀감 표현경험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성적 표현경험에서 각 요인별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즉 가족애착, 학대경험,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탈억제, 및 자기통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이성교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요인들이 성적표현경험의 총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가 1단위 증가시 성적 표현 경험인 0.07증가하며, 가족애착이 1단위 증가시 성적 표현경험이 0.02감소하며, 이성교제가 1단위 증가시 성적 표현경험이 0.0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비교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이성교제, 가족애착 등의 순으로 성적 표현경험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여학생들은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서 이성 교제를 하며, 우리의 인식보다 더 많이 상관계나 키스, 애무를 경험하고 있어 여학생들의 의식수준은 보호적이지만 행동수준은 의식 수준에 비해 무방비적이다(Chang et al., 2000). 그러나 여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로 성교와의 관련성만을 연구해왔다(Han I. Y. et al., 2000, Kim, 1999, Lee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신체적 접촉에서 있을 수 있는 단계에 대한 각 요인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교표현경험에서는 가족요인의 학대 경험과 가족애착, 학교요인의 학교전념과 성취도, 친구요인의 이성교제와 차별적 교제, 감각추구성향의 탈억제, 충동성, 모험성, 심리적 요인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표현경험에 영향하는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요인의 가족애착과 학대경험, 친구요인에서는 차별적 교제와 이성교제, 감각추구 성향에서는 탈억제,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통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족요인 중 가족애착은 친밀감 표현 경험이나 성적표현 경험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이는 부모 양육의 질적 수준이 청소년의 재 임신 경험에 영향하는 요인이라는 결과(Kang, 2000)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가족결손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족구조가 성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Santeli et al., 2000). 따라서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의 위험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측면이므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시 부모- 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훈련 및 가족 간의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대 경험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학대 경험이 십대의 임신과 같은 성 활동에 위험요인(Rhinehart & Gabel, 1998)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Hillis, Anda, Felitti, Marchbanks, 2001)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요인들이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을 설명하는 정도는 친교표현 경험의 6%, 성적표현 경험의 2%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요인은 친교표현 경험을 설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존의 연구결과 가정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46% 설명한다는 결과(Kim & Kim, 1995)는 본 연구와 비교시 성비행을 포함한 전체 비행의 설명력이므로 본 연구 결과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최종적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가족애착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요인들이 친교표현경험이나 성적 표현경험과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학교 전념과 성취도가 친교표현 경험에만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나고 성적표현 경험에서는 학교요인 중 어떤 요인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서 임신이 많다는 결과(Singh, Darroch & Frost, 2001)와 비교시 부분적으로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친구에게 속박된 관계일수록, 친구의 규범이나 요구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수록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을수록 친구와 나누는 신체와 피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성 활동 위험이 높다.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은 친구들의 위험한 성 행동 규범과 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따르도록 하며,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구 집단으로부터 성에 대한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성 활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도 친구들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McWhirter, 1988). 본 연구에서도 친구요인 중 이성교제와 차별적 교제 모두 친교표현 경험과 성적표현 경험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친한 친구의 성적인 일탈행동은 청소년에게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결과(Yamaguchi & Kandall, 1987)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관련 경험의 예방프로그램 운영시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또래를 개입하여 중재하는 방법, 또래끼리의 공동의 과제를 성취해보게 하는 방법, 또래 중 전문가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또래를 이용하여 청소년 문제를 도와주는 방법

(McWhirter et al., 1988)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의 탈억제는 친교표현 경험과 성적표현 경험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동성, 모험심은 친교표현경험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감각추구는 성교경험 및 즉흥적인 성교 등과 관련이 있고(Kraft & Rise, 1994), 감각추구는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Ferguson & Valenti, 1991)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고위험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탈억제 경향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심리적 요인 모두가 친교표현경험에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성적표현경험에서는 자기통제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통제부족이 조기 성경험과 관계가 있고(Small & Bogenschneider, 1994), 내적 통제감이 재임신의 주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는 결과(Kang, 2000) 및 여자 청소년은 자기효능감이 성 관계를 거절하는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원치 않는 성교를 거절할 가능성이 2.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Sionean et al., 2002)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자기통제는 친교표현 경험 및 성적표현 경험 모두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행위자가 직접적인 외적 영향이 없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동통제로 자극과 반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의 자극에 대한 인지적 경향이 행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기 통제가 외적 통제보다 행동수정의 효과 면에서 우위에 있음(Kim, 1991)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친교표현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 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적표현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친교 표현 경험에서 최종적으로 이성교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및 학대 경험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친교 표현 경험의 총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표현경험에서 최종적으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이성교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성적표현경험의 총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선정된 변수들이 성적표현 경험보다는 친교표현 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변수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적표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친구요인은 친교표현 경험이나 성적표현 경험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성경험의 친구여부가 가장 크다는 기존의 결과(Han I. Y. et al., 2000)를 지지

하며, 이성교제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친구라는 결과 (Chang et al., 2000)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상 기성세대의 의견보다는 동료의 의견을 따르고, 동조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세대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성교제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성관련 경험을 하는 단계에서 친교표현 경험에서는 주로 이성교제의 정도가 영향력이 컸으나, 성적표현 경험에서는 차별적 교제가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적용시 대상자에 대한 사정을 통해 일반적인 그룹은 이성교제에서의 친밀감 증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성적표현 경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또래 그룹에서의 압력을 거절하는 방법 및 동료주도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로, 서울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총 63,375명중 633명을 표집 하여 불충분한 응답을 한 111명을 제외한 총 5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관련 경험에 대한 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인자분석 결과에 따른 2가지 유형의 친교표현 경험과 성적표현 경험에 대한 위험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확인하고 설명력을 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교표현경험에 유의한 변수는 가족요인에서 가족애착과 학대경험, 학교요인의 학교전념과 성취도, 친구요인의 이성교제와 차별적 교제, 감각추구성향의 탈억제, 충동성, 모험심, 심리적 요인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성교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및 학대 경험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이 친교표현 경험의 총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표현 경험에 유의한 변수는 가족애착, 학대경험, 이성교제, 차별적 교제, 탈억제, 및 자기통제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구와의 차별적 교제, 가족애착, 이성교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성적표현경험의 총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방프로그램의 적용과 개발시 대상자의 수준을 구분해야 함이 요구되며, 여고생의 성관련 경험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시 가족프로그램의 개발,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성적표현 경험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

안한다.

References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Atwa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Chang, S. B., Kim, S., Han, I. Y., & Park, Y. J. (2000). *Pregnancy rate, prevention strategy for teenage girls*. Seoul: The Commission of Youth Protection.
- Chun, B. J. (1974). Self - 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Study*, 10, 109 - 129.
- Choi, Y. S., Chang, C. J., Cho, H. S., Choi, Y. J., Chang, S. B., Park, Y. S., Lee, N. H., Cho, D. S., & Lee, E. H. (1999). *Women Health Nursing*. Seoul: Soomoon publishing.
- Ferguson, M. A., & Valenti, J. M. (1991). Communicating with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 - takers: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Health Educ Quert*, 18, 303-318.
- Han, I. Y., Park, I. S., & Baek Y. O. (2000). A research on risk factors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s. *Korean J Child & Psychiatr*, 12(1), 138-148.
- Han, S. H., Lee, M. S., & Lee, S. H. (2000). A study on the sexual behaviors and its related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 *J Korean Soc Health Edu Promot*, 17(1), 19-39.
- Hillis, S. D., Anda, R. F., Felitti, V. J., & Marchbanks, P. A. (200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xual risk behaviors in women: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Fam Plann Perspect*, 33(5), 206-211.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ng, Y. S. (2000).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preventing repeated adolescent pregna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s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1999).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sexual activity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12(2). 339-356.
- Kim, J. H., & Kim, E. K. (1995). *A study on female delinquency*. Seoul: Korea Institution of criminology.
- Kim J. H., & Park S. H. (1995). *A research on juvenile drug abuse*. Seoul: Korea Institution of criminology.
- Kim N. S. (1991).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eoul : Kohak Science Published.
- Kraft, P., & Rise, J.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Norwegian adolescents. *Health Educ Res: Theory and Practice*, 9(2), 193-200.
- Lee, S. H., Han, S. H., Lee, M. S., Jo, H. S., Chae, Y. M., &

- Yoo, S. H. (2000).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sex behavior and attitude of unmarried person. *J Korean Soc Health Edu Promot*, 17(2), 1-15.
- McWhiter, J. J. (1988). *At risk youth*, Brooks: Cole Pub.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 image: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 Inc.
- Rhinehart, S. N., & Gabel, L. L. (1998). Teenage pregnancy: an update on impact and preventive measures. *Fam Pract Recertif*, 20(11), 61-68.
- Santelli, J. S., Lowry, R., Brener, N. D., & Robin, L. (2000). The association of sexual behaviors with socioeconomic status, family structure, and race/ethnicity among US adolescents. *Am J Public Health*, 90(10), 1582-1588.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193-202.
- Shin, M. S. (2002). *Study on sex, pregnancy rate and strategy for korean adolescents*.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Singh, S., Darroch, J. E., & Frost, J. J. (2001).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olescent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the case of five developed countries. *Fam Plann Perspect*, 33(6), 251-258.
- Sionean, C., Diclemente, R. J., Wingood, G. M., Crosby, R., Cobb, B. K., Harrington, K., Davies, S. L., Hook, E. W., & Oh, M. K. (2002).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refusing unwanted sex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 females. *J Adolesc Health*, 30(1), 55-63.
- Small, S. A., & Bogenschenider, K. (1994). Youth at risk for early sexual activity and teenage parenthood. *Wisconsin Youth Futures Technical rep. 1*.
- Smith, C.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 Work*, 42(4), 334-352.
- Spear, H. J. (1997). *Teenage pregnancy: the experience of adolescent female who attend an alternative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University, Virginia.
- Yamaguchi, K., & Kandell, D. (1987). Drug use and other determinant of premarital and its outcome: Dynamic analysis of competing life events. *J Marriage Fam*, 49, 257-270.

Risk Factors for Sexual Behaviors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Sohn, Jung-Nam¹⁾

1)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isk factors for sexual behaviors in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by a written questionnaire from June 22 to July 18, 2002 from 522 girls, who were stratified samples from a target population of 63,375 11th grade students from 200 regular high schools and 70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Korea.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AS pc+ program. **Results:** Risk factors for intimate behaviors were association with boy friends, differential association, family attachment, and family abuse experience. These variables cause 68% of intimate behaviors. Risk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s were differential association, association with boy friend, and family attachment. These variables cause 14% of sexual experiences. **Conclusion:** Efforts to reduce sexual behaviors in girls should include the possible role of peers and develop peer leader programs.

Key words : Sexuality, Risk factor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hn, Jung-Na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41-660-1072 Fax: +82-41-660-1119 E-mail: jnsohn@hanseo.ac.kr